“전남도립대 기성회 이사 자녀 장학금 지급 문제”

전남개발공사 부채 연간 이자만 220억… 전승현 사장 “고강도 구조조정”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19일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의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성회 이사 자녀에게 16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전남도립대학교의 방만 운영과 전남개발공사 부채 문제 등이 지적됐다.

◇도립대 기성회 이사 자녀에 장학금=전남도립대학교가 지난해 기성회 이사 16명의 자녀에게 1643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임흥빈(민주당·신안1) 의원은 19일 전남도립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성회 이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학은 학과별로 학부모 1명을 기성회 이사로 임명해 모두 20명으로 이사회를 꾸렸고, 이사 자녀 중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은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의 학생에게 각각 5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는 강원도립대 등 타지역 일부 도립대가 기성회 이사 자녀 장학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 전남도립대는 이사회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임 의원은 “전남도립대는 전체 예산의 67%가량을 도비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기성회 이사 자녀라고 해서 별도의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사 20명 중 9명의 주소지가 광주 등 다른 지역인 것도 문제다”고 질타했다.

◇전남개발공사 1년 이자만 220억원=전남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익 사업 일부가 각종 소송에 계류 중(8건)이며, 부채 규모가 커 한 해 이자만 2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효남(민주·해남 2) 의원은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사전에 충분한 검증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부채가 6764억원이나 돼 자산의 131%를 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이자액은 220억원에 달해 빚을 내 사업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남개발공사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보유자산인 골프연습장(감정가 176억원)을 매각한다고 해 놓고 매각에 실패하는 등 부채상환계획과 노력도 부족하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사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민자유치 등 사업다각화와 신규사업 발굴, 일부 부진사업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흥빈 도의원

김효남 도의원

남악골프연습장을 비롯해 영산호부지 등 일부 자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면서 농수산물유통사업 등 신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전 사장은 부채증가와 관련해 현재 공사의 부채비율이 2012년 결산기준 134%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3번째(1위 제주, 2위 대전)로 낮고 부채비율 평균인 228%과 비교해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용섭 “내년 광주시장 아름다운 경선돼야”

“광주시장·중앙정치 고민중”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은 내년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분열과 갈등이 없는 통합의 아름다운 경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내년 선거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어느 때 보다 통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아무리 광주시장이 잘해도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정권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중앙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광주시정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금은 고민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진짜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들어본 뒤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겠다”며 정기국회 후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의원은 또 “미리 선거분위기를 띄우면 광주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시장은 시정업무에 전념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선거분위기가 일찍 과열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신당’ 입당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안철수 신당이 시대정신으로 읽혀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신당에 입당하면 모를까 광주시장 한번 하자고 신당으로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죽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좀 어렵다고 당을 떠나는 건 아니다. 특히 당적을 자주 옮기는 정치인 치고 잘되는 정치인 못 봤다”며 “나는 원칙과 정도를 지키며 정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반총장, 아우슈비츠 헌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현지시각) 폴란드 남부 오시비엥침에 있는 옛 나치 독일의 강제수용소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를 방문, 수천 명의 수감자가 총살당한 처형자의 벽 앞에 헌화하고 있다. 반 총장은 이날 “세계는 홀로코스트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 경시하거나 부인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영수 광주교육연 이사장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은 19일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실천하겠다”며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전교조와 비 전교조의 대립, 빈부의 대립이 교육의 균형을 심각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생존교육과 참된 가치관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교육을 학교가 책임지는 시대로 이끌겠다”며 “교장에게 학교 운영 자율권을 주고 학교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진정한 책임교단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병두 “내년 선거 새 상상력 발휘 통합해야”

정대철 “민주·안 나뉘면 필패”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에 군불 때기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19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범야권이 어떠한 기치든, 어떠한 목표든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본부장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안 의원 측이 내년 지방선거 때 독자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안 의원도 나름의 노력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고 표명했던 바를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에 참여한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도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 “안철수와 민주당이 결국 경쟁적 협력관계로 가야 한다”며 “합하면 된다. 연대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 고문은 또 “대소선거를 맞이해서 이게 연대나 연합이나 아니면 단일화든가 이렇게 가야 한다”며 “둘이 나뉘면 필패”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jkpark@

문순태 칼럼

세상이 보수와 진보로 쪼개지다

한승원 형. 첫눈이 내렸으니 이제 완연한 겨울이네.

얼마 전 송순문학상 시상식에서 만났을 때까지 만해도 식영정 주변 은행나무들이 온통 황금 물결로 출렁였는데, 어느덧 낙엽이 찬바람에 흩날리고 있네. 작년 이맘 때, 보름달빛에 물들어 미치도록 눈부신 은행잎을 보려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설레는 마음조차도 다 부질없게만 생각되네.

하룻밤 사이에 옴씰하게 떨어져 길바닥에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희수를 앞둔 우리도 이제 서서히 바람 타고 날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까. 썩어 없어질 낙엽을 보면서 이것이 소멸일까, 순환일까 생각해보았네. 소멸이라면 너무 아쉽고, 순환이라면 조금은 위안이 되기도 한다네.

해산 한승원 형. 계사년 끝자락을 붙잡고 시간의 시간 속을 살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문득 유희춘(柳希春)의 시가 떠오르네. ‘미암일기’로 유명한 유희춘이 한양에서 담양 대덕에 있는 부인 송덕봉(宋德峯)한테 보낸 ‘천계음증부인’(天癸吟贈夫人)이라는 시일세. 여기서 천계는 사람의 생식능력이 다하는 해로, 남자는 64세, 여자는 49세를 말한다네.

남들은 늙음을 슬퍼하나 나는 당당하네
천계가 왔지만 내 마음은 태평하다오
수염은 희었어도 머리는 검은 털이 많고
치아는 빠졌지만 눈의 정력은 아직 밝으며
가슴에 만권의 서책을 담으니 입이 껄끄럽지 않고
깊은 밤 편안히 잠 이루니 숨소리도 고요하네
다시금 삼백권의 책을 만들어서
장차 주자(朱子) 정자(程子)의 업을 잇고 싶다네

한 형과 나는 이미 천계가 한참 지났으나, 아직은 눈이 밝고 총기(聰氣)가 조금은 살아있어, 글쓰기에 심신을 연소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허지만 회갑 무렵 우리가 만났을 때, 한 형이 술과 담배를 끊었으니 이제 끊을 것은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 마지막을 끊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 형과 내가 문학이라는 인연 줄로 만난 지가 어느덧 반세기가 되었네. 1960년 1월 대학 입학을 두 달 앞두고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만난, 창창했던 문학청년이 이제 원로 작가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 그려.

우리는 그동안 굴곡진 역사의 한가운데를 얼음 위를 걷듯 아슬아슬하게 지나온 셈이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광복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고, 5·16 쿠데타로 30년 동안이나 유신과 엄혹했던 군부독재 시절을 살았고, 5·18 때 피 흘린 대가로 값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네.

세상이 닫혀있었던 그 시절, 우리는 200자 원고지 한 장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애를 태웠던가.

작가는 시대의 병을 앓는 환자이고, 작품은 그의 투병기와 같다는 말을 가슴에 품고 마음 졸이며 오롯이 문학을 지켜왔지 않은가.

그런데 요즘 세상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울울하네.

종북몰이에 휘말리고 공안통치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세상이 온통 보수와 진보, 적과 동지, 네 편과 내 편의 대결 국면으로 완전히 두 쪽이 난 것 같네. 특히 종편TV에서 논객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게거품을 토하며 자기 주장만을 앞세워 진영논리에 매몰되는 것을 보면 혈압이 오르네.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되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분명 역사의 후퇴가 아닌가.

문득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이 생각나네. 6·25 직후 산골마을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잠들어 있는데 사내들이 방문을 부수듯 열고 들이닥치더니 전짓불을 얼굴에 내리꽂으며 ‘너는 누구 편이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고 물었네. 어머니는 섣불리 대답할 수가 없었지. 말 한마디에 목숨이 걸렸기 때문이지.

지금 한국에서도 “너는 어느 편이냐, 진보냐 보수냐?”는 질문이 불특정 다중에게 내리꽂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 이 ‘어둠 속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자칫 종북으로 낙인찍히게 될까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닌가. 온갖 잣대로 편 가르기를 강요하고, 나와 다름을 기준 삼아 불이익을 주고 비난을 퍼붓는 사회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몸사리기가 깊어가는 이 사회가 참으로 안타깝네.

문득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던 리영희 선생이 생각나네.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사상의 자유가 균형을 잃지 않은 사회는 아직 멀었단 말인가. 한승원 형, 찬바람이 부네, 부디 몸조심하소. 〈소설가〉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급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 높은 가격에 !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타,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화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부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급매)

바쁘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 ◦ 월수익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융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 ◦ 월수익 60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융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 매가 12억(융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 룸 9개, 4층 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 (만실) ◦ 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융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 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 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직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토 지 : 4,864㎡
공 장 : 375㎡
사무동 :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몰탈등)
제조공장
매매가액
3억원
조성중인 장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천원
연락처 : 017-602-1948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투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융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